

광주공장 손실 1485억...이젠 파업 고리 끊어야

기준금리 연 0.25% 동결

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파업 마무리

생산차질 작년의 33% 그쳐 그나마 다행 회사, 노조 무리한 요구 '불수용 원칙' 고수

기아자동차 노사가 12일 올해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하면서 국내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늦게 임금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은 13일까지 예고돼 있었지만 합의안 도출에 따라 12일부터 공장은 정상가동 체제로 돌아갔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총 77시간에 걸친 7차례의 부분파업(주말특근·잔업거부 포함)으로 생산차질 2만3271대, 매출손실 4135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안겼다. 광주공장은 생산차질 8500여대, 매출손실 148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파업 손실이 12차례의 파업이 진행됐던 지난해 광주공장의 2만3400대·3380

억원의 피해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2010~2011년을 제외하고 연례행사가 폐비된 파업 관행에 대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경제의 중심인 기아차 광주공장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공장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관련산업의 보이지 않는 피해도 '눈덩이'로 변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광주공장 62만대 증산프로젝트를 위해 설비를 늘린 협력업체들은 파업 기간 잔업을 못해 매출손실을 키웠을 뿐 아니라 직원들도 자연스레 임금 손실을 겪어야 했다.

노조가 내세우는 파업의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광주공장 사내협력업체 노조 간부가 분신을 기도하면서 특별교섭을 통해 사측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이번 협상에서 '사내협력업체직원 정규직화'를 별도요구안의 1번 항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별도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임금협상을 위해 비정규직 신분문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정

규직의 실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정년연장과 상여금 50% 인상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불수용' 원칙을 고수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노조가 임금인상 이외의 요구안에서 거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도 '불가능한 요구'에 집착해 파업을 일으켰다는 말이 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들 이 더 차갑다. 기아차의 8월 내수판매는 3만9000대로 7월보다 6.0%나 감

소했다.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마치 향간에 떠도는 '파업 기간에 생산된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속설이 작용한 것처럼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에 따라 파업의 고리가 연결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노사 관계 진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양보가 모두 '잘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한은은 12일 김종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4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은 완만한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 대상국인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 경제의 하방 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커

졌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나라별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는 추세이고 경기 침체를 겪는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는 최근 동결을 결정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양적완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에 아직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면서 "단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7월 3.00%로,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동결 결정을 거듭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올해 5월 현재 2.50%로 한 차례 더 인하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환영...지역경제 활력 찾을 것"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아자동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광주상의는 12일 논평에서 "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지역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던 기아차 노사가 정점사태에 대해 잠정합의안

을 이끌어 내면서 크게 시름을 앓던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번 노사간 잠정합의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되면 지난달 21일부터 7차례에 걸친 부분파업 등의 영향으로 8500여대의 생산차질과 1485억원의 매출손실을 빚은

기아차 광주공장과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협력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상의는 "오는 13일 예정된 노조 찬반투표에서도 이번 잠정합의안 이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프로젝트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산업 정상화 주내 판가름날 듯

공정위 "아시아나 CP 출자전환 검토 곧 마무리"

금호산업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 정상화방안의 출자전환 문제를 두고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인데다 자금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 75% 동의도 이번 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가급적 이번 주 중 금호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을 출자전환하는 게 대물변제(代物辨濟)인지 상계(相計)인지 외부 조인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로 지목한 쌍용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물변제로 보면 상호출자 금지 예외에 해당해 이를 6개월 안에 해소하면 그만이다. 채권단은 다만 신규 순환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

소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단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이 상계라고 결론 내리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 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 지원과 관련한 이관저번 역할을 차단하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정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한다는 가장 아래 경영정상화 동의를 접수할 거의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금호폴리켄 여수산단 2공장 준공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폴리켄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2공장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2공장의 대지면적은 6만6000㎡ 규모로 연간 6만대의 이중합성고무

(EPDM)를 생산할 수 있다. 연간 10만대를 생산하는 기존 공장과의 합치면 EPDM 생산 능력 세계 3위의 제조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세계 1위는 랑세스, 2위는 엑

손모빌이다. EPDM은 내화학성이 높은 고기능성 합성고무로 자동차 범퍼, 세탁기 튜브, 선박케이블 등에 주로 사용된다.

금호폴리켄은 "인도·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예상돼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추가 증설에 나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동부대우 "추석연휴 AS 걱정 마세요"

업계 최초 센터 운영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추석(18일)을 제외한 연휴기간에 A/S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와 전국 48개 서비스센터의 1000여 엔지니어가 모두 정상 근무하며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방문·출장 서비스 등 모든 서

비스를 제공한다. 동부대우전자제품 외에도 애플, 일렉트로룩스, 세브코리아, 코윈 등의 제품도 서비스받을 수 있다. A/S 신청은 콜센터(1588-15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wescv.com)에서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내달까지 일제 신고·집중단속

정부는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중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등이다.

또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

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며 국제정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자체도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고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징을 하는 한편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불법 대출 권유 등에 이용된다면 점에서 대포통장 규제를 지속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업 부정부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 | | |
|----------------------------|---------------------------|--------------------------------|-------------------------------|
| ▲ 코스피지수 2004.06 (+0.21) | ▲ 코스닥지수 529.58 (+0.24) | ▼ 금리 (국고채 3년) 2.91% (-0.03) | ▼ 원·달러 환율 1085.50원 (-1.50) |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력증진, 장건강, 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